

현대조경디자인의 추상유형에 관한 연구

김준연* · 이행렬** · 방광자**

*나사렛대학교 플라워디자인학과 ·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A Study on the Abstract Types of the Contemporary Landscape Design

Kim, Jun-Yon* · Lee, Haeng-Yul** · Bang, Kwang-Ja**

*Dept. of Flower Design, Nazarene University

**Dept. of Environment Resources,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Abstract Types in Contemporary Landscape Design. The formation and artistry of contemporary landscape design reveals many areas which previously have not been able to be expressed in scenic landscape thanks to the deviation of the genre in contemporary landscape and the hybridization that has occurred among architecture, landscape and art genres.

The focus of this study is basic research concerning “the abstract”, which is used as a creative artistic theory in a variety of art fields such as landscape, architecture and painting. Through a theoretical establishment of “the abstract”, its process of change, and the discovery of its contemporary principles,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art field in landscapes and the formation of the abstract, abstract language, and abstract properties have been studied.

The use of the abstract in contemporary landscape design can be classified in three ways: Inductive abstract representing conceptual transcendental symbols not logically but rather through intuition and transcendental cognition to display the inner expressions, ideas and minds of the artists. Second, a deductive abstract represents an expansive, logical model for the simplification of objects, distortion, exaggeration based on knowledge and logical reasoning about objective fact based on traditional realism. The complexity of the abstract is a concept that is bound to both the deductive & inductive abstract.

As a major trend, the concept of “The abstract” in contemporary landscape has been putting forth ever-deeper roots. New trends like abstract works and landscape architecture reflecting the artist’s inner expression, in particular, will provide fertile soil for landscape in the future. Further research about the concept of “the abstract” will also be necessary in the time to come.

Key Words: Inductive Abstract, Deductive Abstract, Complex Abstract, Aesthetic

Corresponding author: Jun-Yon Kim, Dept. of Flower Design, Nazarene University, Choenan 331-718, Korea, Tel.: +82-11-788-9280, E-mail: kjflower@naver.com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대조경의 추상유형에 관한 연구로서 현대조경의 탈장르적 경향과 건축, 조경, 예술 장르간의 하이브리드화에 의해 현대조경의 형태나 예술성은 과거의 픽처레스크식의 조경이 표현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을 표현해 내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현대의 조경은 한편의 거대한 추상예술을 보는 듯하고, 그 난해함은 정도를 더하고 있어 일반대중들 뿐만 아니라 전문 조경가들조차도 추상적 현대조경에 대한 해석이 부분하고 정확한 이해나 해석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현대조경의 추상성에 대한 연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경, 건축, 미술 등 여러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예술의 창작원리로 작용되어온 '추상성'에 대해 근본적인 탐구를 하여 추상에 대한 이론정립, 추상성 변천과정, 추상성의 현대적 의미를 파악하여, 조경학적 시각으로 각 예술분야와의 연계성을 밝히고 현대조경작가와 작품에서 표현되어 나타나는 추상형태, 추상언어, 추상특징을 추출해봄으로써 현대추상조경의 진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대조경의 추상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연역적 추상조경(inductive abstract)은 논리적 과정에 의하지 않고 직관적이고 선형적인 정신성, 그리고 초월적 관념 표상을 의미하며 예술가의 내면의 세계 즉, 다시 말해서 외부 대상이 없이 예술가 자신의 관념이나 마음 속을 그리고자 하여 대상의 재현이 아닌 작가 내면의 표현 또는 표출되는 것이다.
- 귀납적 추상조경(deductive abstract)은 전통적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대상을 객관적 사실에 대해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상(捨象)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을 단순화하거나 왜곡, 과장, 확대된 논리적 조형성을 표현한다.
- 복합적 추상조경(complex abstract)은 연역적 추상조경과 귀납적 추상조경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조경의 추상유형에 관한 연구는 추상조경작품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현대의 추상조경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미래의 조경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이의 근본이 되는 추상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주제어: 연역적 추상조경, 귀납적 추상조경, 복합적 추상조경, 미학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사물의 근본문제에 대한 탐구가 시작하여 사물의 근본이나 원리에 대하여 연구되었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과 사회, 자연에 대하여 탐구하여 왔으나, 현대에 와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에 집중을 하여 대상의 물질적 가치와 피상적 표현, 지각적 현실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순수예술분야가 아닌 조경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연구의 중심이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접근이나 기능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인간의 내적 탐구를 통한 현대조경의 철학적 이해나 미학적 탐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대조경(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은 모더니즘 조경이후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조경에서부터 그리드의 구조나 공간을 벗어나 불확정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디자인을 요구하게 되었고(김한배, 2004), 탈장르적 경향과 건축, 조경, 예술 장르간의 하이브리드화(hybrid)가 이뤄지고(장일영,

2006) 현대조경작품의 형태나 예술성은 과거의 픽처레스크식(picturesque)의 조경이 표현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을 표현해 내고 있다. 예를 들어 '빅스비파크(Byxbee Park)'에서 보면 여러 미학적 해석은 뒤로 하고라도 나무 한 그루 심지 않고 초지와 말뚝만으로도 오늘날의 대표 조경작품으로 거론되고 있음은 현대조경의 추상성이 비단 형태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부분까지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모더니즘 추상회화에서 영향을 받은 모더니즘 조경(김한배, 2001)에서 나타났던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또 다른 유형의 추상으로 많은 사례를 통해 현대조경의 추상성이 발전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조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추상유형에 관해 과거의 모더니즘과는 구별되는 분류방식이 요구되고 이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조경, 건축, 미술 등 여러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예술의 창작원리로 작용되어온 '추상성'에 대한 근본적 탐구를 하여 추상에 대한 이론정립, 추상성 변천과정, 추상성의 현대적 의미를 파악하여, 조경학적 시각으로 각 예술분야와의 연계성을 밝히고 현대조경작가와 작품에서 표현되어 나타나는

추상형태, 추상언어, 추상특징을 추출해봄으로써 현대조경의 추상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세부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상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의 기초를 확립하고 예술의 의미와 현대예술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추상의 철학적 사고를 한다.

둘째, 현대예술, 현대건축과의 연계성을 밝히고, 현대추상에 예술과 추상건축의 접근을 통해 현대조경의 추상성 분류기준을 확립한다.

셋째, 현대조경의 대표하는 작가와 해당 작가의 작품에 대해 조사를 하고 조사되어진 현대조경작품을 예술비평이론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분석틀에 의해 분석하고 결과를 이끌어낸다.

연구의 방법은 주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조경학, 미학, 철학, 예술학, 건축학, 논리학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고 현대조경의 추상성 판단기준과 추상성 판단표를 마련하기 위해 펠트만의 비평 4단계를 활용하였다.

에드문트 부르케 펠트만(Edmund Burke Feldman)의 저서 「시각적 경험의 다양성 Varieties of Visual Experience: Art as Image and Idea(1967)」에서 자세히 주장되고 있는 펠트만의 비평 4단계는 기술, 분석, 해석, 평가로 나뉘지는 단계적인 비평양식은 1967년 이후 수많은 교육자들에 의해 채택되어 사용되어졌으며(김정란, 2005), 또한, 지금까지 나온 많은 비평양식들의 기본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지연, 2004).

또한, 현대조경작가와 작품의 선정은 피어뤼기 니콜린(Pierluigi Nicolini)과 프란시스코 레피쉬티(Francesco Repishti)가 2003년에 저술한 「현대 조경디자이너 사전, Dictionary of Today's Landscape Designers」에서 구상작가를 제외한 총 71명의 추상작가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작가들 중 각 추상유형의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작가 및 작품연구를 위해서 작가가 직접 저술한 문헌이나 작가나 작가가 소속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참고하였다.

II. 추상의 개념

1. 추상(抽象, abstract)의 정의

1) 일반적 추상

추상(抽象, abstract)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아브스트라에레 'abstrahere'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는 어떤 대상에서 근원적인 것을 추출한다, 축소와 생략의 의미를 갖고 있다. 추상의 미학적 개념도 그와 비슷하여, "표상에서 공통되는 측면이나 성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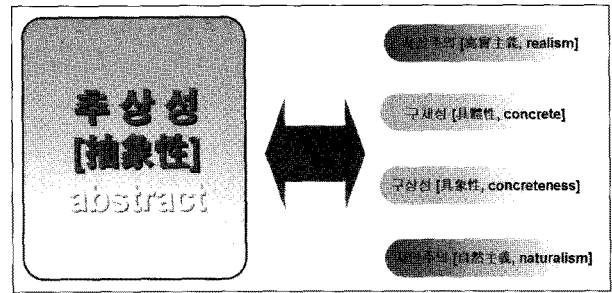


그림 1. 추상성의 상대적 개념

을 뽑아내어 사유의 대상이 되는 정신 작용" 또는 "어떤 속성이나 특성을 추출하여 파악하는 심적 작용"을 의미하며 사전적으로는 "대상의 전체에서 공통되는 특성의 요약, 발췌"를 말한다(유재길, 1992).

추상이라는 용어가 예술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된 것은 1910년대이다. 구체적으로 W. 보링거(Wilhelm Worringer, 1881~1965)가 고대와 르네상스 미술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추상개념을 사용하였다. 그의 저서인 「추상과 감정이입 Abstraktion und Einfühlung(1908)」에서 중세 북구 미술이 자연의 유기적 모방과 장식적인 기하학적 추상을 어떻게 연결시켰는가에 대해 고찰하였고, 추상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오광수, 1994). 이 때 추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에 대한 비구체적인, 자세한 것에 대해 애매모호한 상황을 말한다. 회화에서 추상화가 사물의 형상이 완전히 탈락된 것이라 한다면 구상화는 사물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을 말한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추상의 등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전환점임을 알 수 있다. 일찍이 레오 스타인버그는 과학문명이 발달되는 20세기 초에 추상의 움직임이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음을 피력한 바 있다. 그의 표현대로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미술, 건축, 음악, 조경 등의 전반적 예술이 추상으로 바뀐다(김홍기, 2002).

2) 추상의 발전

과거에서나 지금이나 우리가 미술작품을 대할 때 보는 방법으로, 미술에서 구상미술을 일반적인 경향으로 여겨왔다. 즉, 구상미술과 추상미술로 구분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분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현대추상미술이 등장하고 나서는 기존의 미술과 다른 형태인 추상미술과의 구분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그 반대 개념인 구상미술이라는 말이 미술용어로 사용되었다(町田甲一, 1986). 그러므로 구상과 그 반대어인 추상이라는 단어가 미술사에 등장하고 일반화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이다. 따라서 추상회화의 시작이 20세기 이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예술의 의미(The Meaning of Art)를 집필하였던 허버트 리드는 그의 저서를 통해 '모든 예술은 본래 추상적이다(Herbert Read, 1968)'라고 하여 예술에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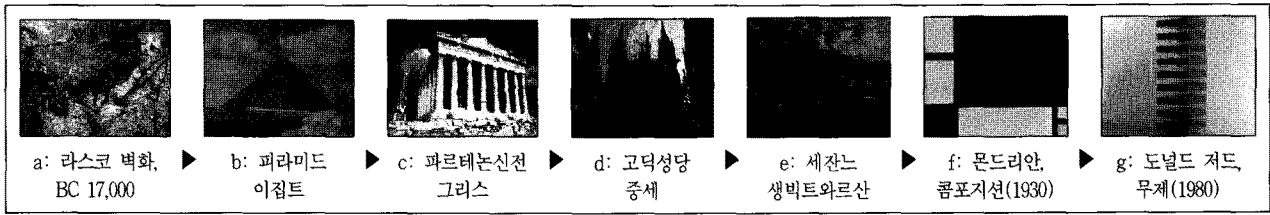


그림 2. 추상성의 상대적 개념

표 1. 추상개념의 시대적 변화

구분	의미	표현특징
선사시대	자연의 단순한 묘사	눈에 보이는 윤곽의 묘사
이집트	기하학의 발견(실용적 지식으로 활용) geo(토지)+metry(측량): 경험적 산물	단순 기하학적 형태
그리스	기하학 탄생(황금비율) 자연미의 이상화, 합리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수학적 관계	안정된 비례와 장중한, 도리식 신전
중세	종교적 열망 무한높이의 천정 -인간을 천상의 세계로 높이는 매개로 인식	첨두아치에 의한 수직강조 강렬한 색의 스테인드글라스
근대	기하학적 예술의 부흥 예고	원통형, 구형, 원뿔형 등의 기하학적 입방체 강조
1950년 이전	자연으로부터 추출되어진 형태	관념적인 선과 형태를 가지고 표현
1950년 이후	개념적 특징의 강조	단순한 형태의 기하학 사용

추상적 개념은 원래부터 예술이 가진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표 1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추상개념은 선사시대 라스코(Lascaux) 동굴벽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집트, 그리스, 중세를 거치며 발전하여 왔다(장재웅, 2005). 특히, 20세기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추상미술에 의해 본격적인 추상예술이 성립하게 된다.

3) 추상조경의 시작

추상조경이란 앞의 추상미술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상조경(풍경식 조경)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근대 모더니즘 이후에 등장한 조경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정형화된 기하학적 유럽식 정원에서도 일부 추상성을 엿볼 수는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추상조경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추상조경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자연의 형상이 사라졌거나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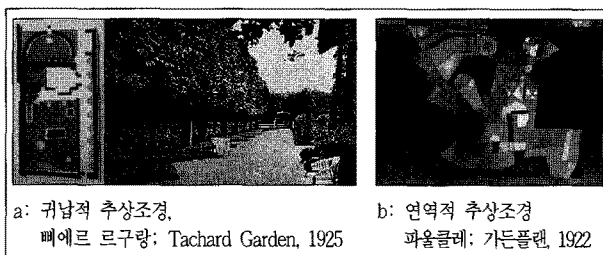


그림 3. 추상조경의 시작

의 재현이 포기되어 기존의 조경에서 볼 수 없었던 형태로 전위적 특성(Avant Garde)을 지닌 조경을 의미한다.

4) 추상의 철학적 사고

추상(抽象, abstract)이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오광수, 1994)로 통용되고 있다. 첫 번째는 추상의 추(抽)는 앞의 추상의 정의에서 언급하였듯이 뽑아내거나 추출한다는 의미로서 이미 단어 자체에서 '동사'로서의 뽑아낸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귀납적 추론을 내포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명사'로서의 추상으로 우리가 '추상적이다'라는 말을 가끔 사용하는 데 이때 추상이 통용되는 의미는 바로 '잘 모르겠다. 애매모호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추상은 근본적으로 형태를 뽑아내는 단순화가 그 출발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의 라스코 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 사물의 단순화 시키는 작업에서 초기 추상의 소박한 형태를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추상은 모방(미메시스, Mimesis)¹⁾ 개념과도 무관할 수 없다(H. Koller, 1954). 왜냐하면 추상이지만 모방개념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 가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미리 말하자면 전자는 귀납적 추상이고, 후자는 연역적 추상으로 구분한다(노영덕, 2004)²⁾.

첫째는 대상의 모방과 재현을 통한 예술로서, 오래전부터 전해 오던 전통적 예술방법으로 원상에 대한 미메시스(Mimesis, 재현 또는 모방)(오병남, 2003)를 통한 예술적 표현을 말하며, 귀납적 추상으로 회화에서는 지적, 논리적 차가운 추상을 일컫는다.

둘째는 연역적 추상인 표현주의적 뜨거운 추상으로 추상의 방법이 전통적 방법과는 크게 차이가 나므로 과거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는 현대예술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현대예술에서는 재현을 폐기하였기 때문에, 원상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관념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할 수도 있으며, 원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재현이나 모방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어떤, 무엇의 방법으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각은 플로티노스의 철학이론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 고대의 철학자인 플라톤(Platon)이 현상의 세계와 이념의 세계로 구분하여 모든 예술은 완전한 세계인 '이데아(idea)'를 모방하였기에 저급한 것으로 취급한 것과는 달리, 후대의 철학자인 플로티노스(Plotinos)는 '일자(一者, the One)'의 테

오리아(미적 직관, theoria)를 통해 인간의 영혼이 정화되고 상승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표현주의적 추상예술의 근원으로 예술의 존재론적 지위를 플라톤의 '침상의 비유'와는 전혀 다르게 부여하였다. 미술사학자인 라코스트(Michel Conil Lacoste)에 의하면, "칸딘스키는 자연과 미술을 동등하게 만들었다. 예술과 자연의 창조과정은 똑같다. 그는 예술과 자연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만들고 두 작품은 동시에 개화되고 독립적으로 살아 있는 개체라고 주장하였다(Michel Conil Lacoste, 1979)."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플로티노스의 '유출설'에 의해 인간에 의한 예술적 지위가 상승된 것과 마찬가지로 신이 자연을 창조한 것과 동일한 지위로서 칸딘스키의 예술에 의해 인간의 예술적 지위가 인정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칸딘스키 자신도 그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의 저서인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Über das Geistige in der Kunst)」에 따르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상의 재현을 포기하고 순수 추상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였고, "예술가의 눈은 자신의 내적 삶의 방향으로 돌려져야 하며, 귀는 내적 필연성의 언어에 향해 있어야 한다(W. Kandinsky, 1912)."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인간의 사고에서 출발한 추상은 자연의 단순한 묘사 즉, 원상에 대한 단순한 모방(Mimesis)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관념과 사고가 더해지면서 오늘날의 현대적 의미의 추상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단순히 작품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원상의 모방인지 아닌지로 추상을 구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모방을 통해 예술활동을 하여 모상이 탄생하였다고 하여도 원상의 모습과 모상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를 경우 작가가 아닌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원상과 모상의 양자간의 유사성의 인식 유무에 따라 이를 비모방으로 볼 수도 있으며, 구체적 대상이 없이 작가의 관념적인 것을 그렸다 해도 원상의 역할을 한 그 관념에 의해 일종의 이미지를 통한 모방예술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추상의 분류

추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오래 전부터 추상적 표현을 하여 왔으며, 선사시대의 벽화, 신석기시대의 고인돌 등의 모든 표현에서 추상성을 나타내었다고 알고있다. 그러나 추상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모든 인간의 표현과 모든 예술에 적용을 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抽象)과 구상(具象)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모든 것이 추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추상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어느 선에서는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1) 추상의 기존 분류방법

추상의 분류는 대표적인 두 갈래로 나누고 있다. 우선 첫 번째가 귀납적 방법의 기하학적 추상양식이고, 두 번째가 연역적 방법의 표현적인 추상양식이라 하겠다. 두 가지 유형의 차이란 연역적 추상의 경우는 예술가 내면의 세계 즉, 다시 말해서 외부 대상이 없이 예술가 자신의 마음 속 관념상을 그리고자 하였던 것에 비해, 귀납적 추상은 전통적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외부 객관적 대상으로부터 논리적 추론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인가로 구분할 수 있다.

2) 추상의 분류에 있어서 조경분야의 특수성
조경이나 건축과 같이 순수 예술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에서는 위와 같은 분류를 동일하게 적용할 때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추상성을 띤 현대조경작품에서 개인의 정원이나 기획안, 국가적 프로젝트 등 일부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100% 순수한 연역적 추상작품을 만든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연역적 추상조경작품에서 칸딘스키나 뉴만처럼 정말로 알 수 없는 저 너머 세계의 정신이 작가에게 들어와서 저 깊은 심연의 작가 내면세계를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회적 타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장르적 성격 때문에 결국에는 이성적 판단이 개입이 되어 완전한 연역적 추상이 될 수 없는 반(半)연역성을 띤 귀납적 추상이 된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조경작품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무시하거나 보행동선에 대한 고려, 식재 및 휴게공간의 계획 등 많은 항목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조경계획과정에서의 관념이나 컨셉 등 연역적 추상에 의해 진행을 하더라도 실현되는 데에 있어서는 귀납적 방법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 또한, 순수예술에서는 작품의 대상이나 표현양식에 대해 제한을 받지 않고 예술가의 의지에 의해 얼마든지 다양한 캔버스, 금속, 나무 등의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으나, 조경의 경우 실현을 전제로 하지 않은 계획안 내지 개념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대지라는 장소성이 부여되고 작품이 완성된 후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정이 항상 존재함으로 인해 결국 작가의 생각이나 관념의 전개는 순수예술에는 없는 기능적 고려 내지 이용에 따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경의 작품제작과정을 통한 연역적 추상과 귀납적 추상을 정리하면 표 3과 같이 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연역적 추상에서는 연역적 방법에 의해 개념의 설정이 이뤄지고 나서 주관적 표현에 의해 실재화되나, 귀납적 추상에서는 사실상 경험에 의한 분석 및 이성적 판단을 통해 실재화되는 과정(조정승과 안건용, 1993; 임승빈, 1984)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조경이나 건축에서는 기존의 순수회화나 조각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객관적 사실, 이성적 판단에 의한 귀납적 추상과 작가 내면의 관념세계 표출인 연역적 추상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취하는 작가의 제작 방법이 귀

표 2. 작품제작 프로세스

구분	순수회화 및 조각	조경 및 건축
연역적 추상	선택적 관념, 직관적 논리	선택적 관념, 직관적 논리
	▼ 주관적 표현	▼ 개념의 설정 내면세계의 표출
	▼ 작품의 완성	▼ 실제화 과정(디자인) Black box적 사고 ▼ 작품의 완성
귀납적 추상	사실적 경험, 이성적 판단	▼ 잠소됨기, 경관읽기
	▼ 객관화 과정	▼ 사실적 경험에 의한 분석 및 이성적 판단 ▼ 추상화 과정 추출, 축소, 생략 Glass box적 사고
	▼ 작품의 완성	▼ 실제화 과정(설계) ▼ 작품의 완성

납적이었는지 또는 연역적이었지 그 방법론적 입장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현대조경의 추상유형

본 III장에서는 현대조경의 추상유형을 구분하고 추상성 판단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술작품의 이해방식인 감상과 비평과정을 도입하여 현대조경의 평가방법을 도출하여 분석의 틀을 구성한다.

1. 감상(鑑賞)과 비평(批評)

1) 예술감상

예술에는 창작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감상(appreciation)'이란 용어가 있다. '감상'은 예술작품의 의미와 질, 그리고 가치를 평가하는 작용으로 예술을 감수하고, 음미하며, 평가하는 일이며(김계연, 2006), 예술작품의 감각적인 형식과 정신적인 내용을 맛보고 즐기는 미적 체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감상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감상이란 어휘 대신 '향수', '관조', '예술의 지각', '예술의 수용' 등 다양한 범주에서 고찰하고 있다(박휘락, 2003).

또한, 예술감상은 일종의 인식활동이며, 그것은 인류의 인식활동의 일반적 법칙을 따르고 감성인식에서 이성인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이 인식과정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성인식과 이성인식이 끊임없이 순환·

왕복하여 인식의 성과를 얻는다(編著組, 1989). 이러한 예술감상의 인식과정에서 예술작품은 사람의 눈·귀·촉감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작품의 형상이나 작품의 개념, 외형적 모습을 수용한다. 이처럼 어떠한 미술작품이나 건축작품, 조경작품에 대하여 1차적으로 감각기관이 수용하고 후에 두뇌활동에 의한 2차적 인지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론 감상자에 따라서 감각기관의 발달 정도가 차이가 나고 개인의 주관이나 기호, 생활의 경험, 사회적 환경, 삶의 방식에 따라 수용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술감상이 복잡한 사고체계를 요구하는 사유활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량적 판단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조경과 같이 불특정 사람들이 감상하고 이용해야 하는 실용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장려에서 이에 대한 판단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2) 예술비평

예술분야에서 비평이 등장한 것은 건물 혹은 교회에 설치될 목적으로 예술작품이 만들어졌던 공공적 성격의 예술과는 달리 예술이 예술가 자신의 개인적 차원에서 예술이 대중과 마주한 이후에 미술감상의 태도가 생기면서 시작되었고, 프랑스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술비평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지만 비평에 대한 새로운 양식적인 기초는 1795년 이후 등장한 디도로의 살롱비평에서 시작된다(Hermann Bauer, 1998). 그 당시에는 미술이론가로서보다는 도덕적인 입장에서 시작하였다. 미술비평은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분석, 이해 및 비판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미술작품의 가치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학습활동이다(Jerome Stolnitz, 1991).

이렇게 시작된 예술비평은 평가적 활동으로 기준·규범 등 그 평가 대상의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박이문, 1995). 앞에서의 예술감상은 순수한 감성적 평가를 의미하지만 비평은 감상에 의한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와 외재적 가치(extrinsic value)에 대한 모두를 평가의 범위에 포함한다(오종환, 1995).

펠트만(Feldman)의 저서 「시각적 경험의 다양성 Varieties of Visual Experience: Art as Image and Idea(1967)」에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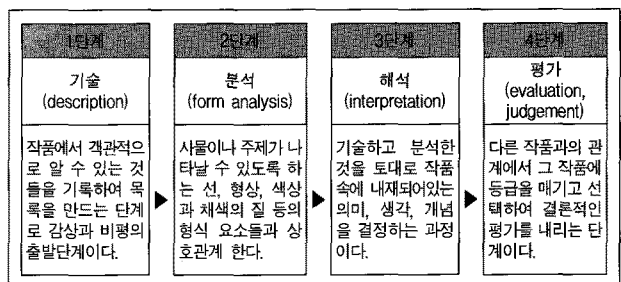


그림 4. 펠트만의 비평 4단계

솔비평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펠트만의 비평단계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박휘락, 2003). 위의 그림 4는 펠트만의 비평 4단계이다.

2. 현대조경의 추상성 판단

우리는 예술의 초(超)감각적인 어떤 실체에 대하여 예술가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조경가가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관념, 감정, 정서에 대하여 어떤 정확한 판단이 힘들고 논리적 형식 속에서 타당한 개념을 확실히 드러낼 수 없으며, 단지 수용자적 입장에서 상징에 의한 직관적 판단과 경험적 지식, 이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추론적 형식을 빌어서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비평이나 판단 근거의 유의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며, 객관적 판단에 주관성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나 판단에는 인간의 주관이 배제된 기계적 장치에 의한 평가가 아니므로 주관의 완전한 배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펠트만의 비평 4단계를 기초로 하여 현대조경의 추상성 판단의 방법을 마련한다 (Anna Moszynska, 1998: 김현화, 2001: Denys Riout, 2006: Hal Foster et al., 2004).

1) 1단계

현대조경작품의 추상성 판단과정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로 작품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하여 기술하고 눈에 보이는 시각적 상황들만 가지고 1차적으로 추상작품을 판별하는 단계이다. 즉, 1단계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상 작품이 추상작품인지 아니면 구상작품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추상작품이라고 하면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성이 결여되며 자연주의를 따르지 않는 작품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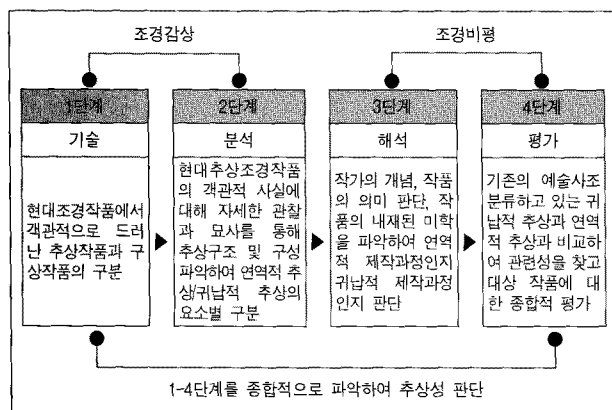


그림 5. 현대조경작품의 추상성 평가 프로세스

따라서 어떤 대상에서 근원적인 것을 추출하여 축소, 생략 등의 과정을 거쳐 사물의 형상이 사라지거나 비구체적이고 애매 모호하여 알 수 없는 형태로 형상이 자율성이 강조되어 대상의 재현이 거부가 된다면 추상작품에 속할 것이고 만일 자연주의를 따르고 구체적 형상에 대한 재현이나 사실적 성격을 띤 작품이라면 구상작품으로 구분된 것이다.

표 3 추상성 판단 기준표에 따라서 1차적으로 주어진 작품의 기본적인 정보에서 조형요소로 파악되는 정보를 세분화하여 추상적 작품과 비추상적 작품인 구상작품으로 분류한다.

2) 2단계

대상이 되는 작품이 1단계에서 구상작품으로 판명이 된다면 다음 단계로의 진행은 필요가 없을 것이고, 추상작품으로 판명 된다면 2단계는 추상조경작품에서 표현된 형태, 색상, 공간 등 자세한 관찰과 묘사를 통해 추상표현요소를 밝히고, 1단계에서 지적된 주제와 조형요소, 추상표현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해서 작용하고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파악한다. 또한, 추출된 추상표현요소들을 표 4와 같이 연역적 추상과 귀납적 추상으로 구분한다.

표 3. 추상성 판단 기준표-1단계

1 단계	항목	세부내용	
주제	사물에 대한 묘사	사실적, 자연적	구상
		추상적, 알 수 없다(외부의 세계와 전혀 관계가 없음).	추상
	전체적인 공간의 느낌	친근하다.	구상
		낯설다, 이질적임	추상
	형태의 윤곽	자연스럽다.	구상
		인공적이거나 형태의 파괴	추상
기술	선과 면	자연적이다.	구상
		기하학적이거나 딱딱하다(직사각형, 십자형, 원-정사각형의 이동과 분할과 회전)/자유곡선이다	추상
	색과 명도	산이나 들에서 보던 색이나 명도이다.	구상
		낯설거나 인공적인 색(비사실적인 색채)의 배합이다(흑과 백, 노랑, 빨강, 파랑 등 원색의 사용), 색채의 자율성 확보(재현적 기능의 탈피)	추상
	형과 형태	재현적이다.	구상
		비재현적이다(모방에서의 해방)/기하 형태의 순수조형미 추구, 단순한 표현, 형태의 극단적 단편화(斷片化)	추상
패턴	자연스런 패턴이다.	구상	
	규칙적 반복이거나 어색한 불규칙적 반복이다.	추상	
공간	전통적 방법을 따르고 있다.	구상	
	비전통적 방법을 따르고 있다.	추상	

표 4. 추상성 판단 항목-2단계

2단계	항목	추상표현	
		연역적 추상	귀납적 추상
분석	주제	초자연적, 관념적, 감정적, 비합리적, 명상적, 비가시적(非可視的)이고 내적인 상태의 표출	절대의 감정, 구체적, 증명적, 사실적, 이성적, 경험적, 객관적
	구조	비대칭적, 열린 구조, 불균형	대칭, 닫힌 구조, 균형
	형태	유기적, 실형적, 비정형적, 역동적	기하학적, 안정적
	재료	비물질적 요소의 사용, 이차원적 표현(은유, 상징적 사용)	실재적 요소의 사용, 일차원적 표현(직접적 표현)
	관계성	낮설음, 어색함, 탈공간적(탈지역적), 불확정적, 자율성	기계적, 산업적, 공간적(지역적), 확정적

자료: Pierluigi Nicolin and Francesco Repishti, 2003

3) 3단계

작품의 이론적 배경이나 근거의 도출로서 작가가 평소에 선호하거나 펼쳐왔던 생각, 이론, 사상 등으로 작품의 구상 및 설계 과정에 대해 판단한다. 즉, 작품의 구상단계에서 논리적 판단에 의해 작품의 구상을 하였는지 아니면 '플로티노스의 유출론'에서 설명된 예술의 경우에서처럼 '저 너머의 알 수 없는 무엇이 작가 내면의 세계로 들어와서 표출되었는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작가가 남긴 글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각 작품에 대한 해설이나 작가 의도를 표명하였을 경우에는 판단 사유가 분명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의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3단계에서는 연역적이나 귀납적이냐는 판단을 보다 세밀한 작품분석을 통해 제작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작품의 제작 과정상 이성적 판단에 의해 귀납적 제작과정을 거치는지 아니면 직관적 논리에 의해 연역적 과정을 거치는 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4) 4단계

마지막 판단 단계로서 기존의 양식사적 비교에 의한 판단부분이다. 이미 앞에서 연구되어 분명하게 분류된 순수예술분야의 분류를 적용함으로써 현대조경작품의 추상성에 대한 판단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따라서 연역적 추상의 다리파, 청기사파, 다다,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 미니멀리즘, 개념미술의 분류항목과 귀납적 추상의 큐비즘, 미래주의, 데스틸, 구성주의, 옵아트, 키네틱아트, 대지미술의 분류항목으로 구분된다. 이때 귀납적 추상분류항목과 연역적 추상분류항목에서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를 제외하는 것은 인상파나 후기 인상파의 경우 추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시작을 알리는 단초로 작용을 하였기에 연역적

표 5. 추상성 판단 항목-3단계

3단계	항목	추상표현	
		연역적 추상	귀납적 추상
해석	작가의 의도	직접적으로 작가가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을 인터뷰, 글 등을 통해 연역적 추상관념으로 제작하였음을 밝힌 경우	직접적으로 작가가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을 인터뷰, 글 등을 통해 귀납적, 논리적 추상관념으로 제작하였음을 밝힌 경우
	작품 해설	작품의 제작 배경, 작품의 이론적 배경, 비평가의 작품 해설이 연역적 추상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해설	작품의 제작 배경, 작품의 이론적 배경, 비평가의 작품 해설이 귀납적 추상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해설
	제작 과정	작품의 제작 과정상 직관적, 관념적, 주관적 사고에 의한 작품제작을 하는 경우	이성적, 논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귀납적 제작과정을 거쳐 작품제작을 하는 경우

추상에서는 다리파, 귀납적 추상에서는 큐비즘부터 분류항목에 넣기로 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1~4단계까지를 평가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작품의 추상성을 판단하게 된다.

3. 현대조경의 추상유형

현대조경의 추상유형을 피어뤼기 니콜린(Pierluigi Nicolin)과 프란시스코 레피쉬티(Francesco Repishti)가 2003년에 저술한 「현대 조경디자이너 사전, Dictionary of Today's Landscape Designers」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대상이 되었던 작가 총 85명 중에서 구상작가를 제외한 총 71명의 추상조경작가를

표 6. 추상성 판단 항목-4단계

4단계	판단항목		
평가	연역적 추상 (inductive abstract)	다리파	Brücke
		청기사파	Blaue Reiter
		다다	Dada
		초현실주의	Surrealism
		추상표현주의	Abstract Expressionism
		미니멀리즘	Minimalism
	귀납적 추상 (deductive abstract)	개념미술	Conceptual Art
		입체파	Cubism
		미래주의	Futurism
		데스틸	de Stijl
		구성주의	Constructivism
		옵아트	Op art/Optical art
	키네틱 아트	Kinetic art	
	대지예술	Land art	

대상으로 추상성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표되는 작가를 각각의 유형별로 1명씩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 연역적 추상조경

1960년대 후반, 비토 아콘치는 1968년 이전의 박제된 예술에서 벗어나 실제 삶 속으로 뛰어들기를 갈망했던 '보디아트(Body Art)'의 선구자로 문학, 영상, 건축 등의 시대에 따라 매체만 달라졌을 뿐 그의 관심사는 인간의 신체라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 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 퍼포먼스, 필름 그리고 비디오 작품들이 전시공간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80년대 중반 설계사무소를 오픈하여 공적 공간과 인간의 신체가 가진 유기적 유사성을 밝혀내기 시작했다(김수기, 2007). 거리, 플라자, 정원, 공원 빌딩입구, 교통센터 등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2) 귀납적 추상조경

앞의 연역적 추상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논리적, 이성적 추상조경의 유형이다. 대표작가로는 인도 국적의 찰스 코레아(Charles Correa, 1930)이다. 그는 건축가이며 도시계획가이지만, 오히려 독특한 개성을 지닌 현대조경가로 더욱 알려져 있다. 자와할 칼라 켄드라(Jawahar Kala Kendra)와 푼(Pune)대학 캠퍼스는 모더니즘적 인도의 전통의 힘찬 기념성을 잘 섞어서 성공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표 7. 비토 아콘치 추상작품

구분	내용
1단계	추상작품
2단계	극도의 추상적 주제 표현, 비대칭적이고 유기적, 실험적 형태 시도
3단계	작가의 추상의식을 통해 공간성격과는 달리 공간의 자율성 부여, 예술적 정원의 탄생
4단계	초현실주의적 몽환적 이미지, 개념미술
추상 언어	인간의 존재성, Inside of outside, expand, twist, Stretch

자료: <http://photo.anyang.go.kr/Clist.a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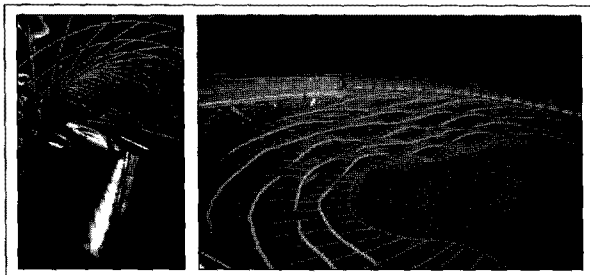


그림 6. 비토 아콘치; Anyang Linear Building(안양예술공원), 2005

표 8. 찰스 코레아 추상작품

구분	내용
1단계	추상작품
2단계	인도 전통과 현재의 통합을 주제로 하여 닫힌 구조 속에서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소재에서도 지역성을 띤다.
3단계	지역적, 시간적,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컨텍스트를 시도하였다.
4단계	데스틸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구성주의적이다.
추상 언어	metaphor, sensuality, 탈경계, inside and outside.

자료: <http://www.charlescorre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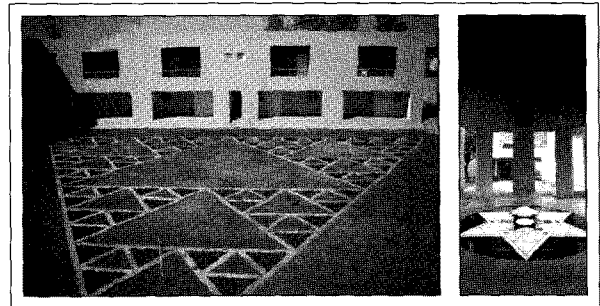


그림 7. 찰스 코레아; IUCAA, 1988-92

3) 복합적 추상조경

복합적 추상조경은 연역적 추상의 성격과 귀납적 추상의 성격 모두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또한, 복합적 추상조경에 있어서도 귀납적 추상성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연역적 추상에 더 가까운 복합적 추상조경과 연역적 추상성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귀납적 추상에 더 가까운 복합적 추상조경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연역적 복합 추상조경

대표작가로는 미국 국적의 캐더린 구스타프슨(Kathryn Gustafson, 1951)이 있다. 그녀의 정원 디자인은 추상적이다. 그러나 심플하고, 조경의 역사나 개인적 기억을 담고 있으며 대지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녀의 선행적이며 실험적인 성향은

표 9. 캐더린 구스타프슨 추상작품

구분	내용
1단계	추상작품
2단계	열린 구조와 형태, 작가는 부지의 장소성을 중요시 여기며 공간과의 교감을 시도
3단계	물, 나무, 암석, 대지와와의 관계, 조명=대지의 리듬감 물, 나무, 암석, 대지와와의 관계, 조명=대지의 리듬감
4단계	미니멀리즘적이며 대지예술적 성격
추상 언어	Abstract, Simple, Memory, Harmony

자료: http://www.landliving.com/image/groundswell_1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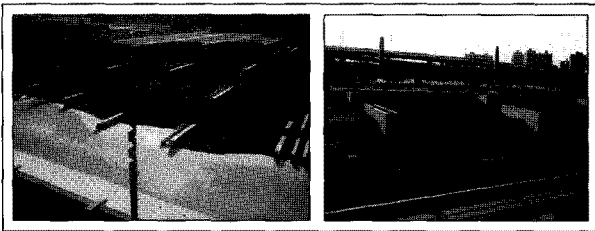


그림 8. 캐더린 구스타프슨; Shell Petroleum Headquarters, 1991

표 10. 칼로스 페라타와 호세 루이스 카노사 추상작품

구분	내용
1단계	추상작품
2단계	삼각형 그리드, 지형적
3단계	이성적이고 인위적인 형태의 식재 패턴
4단계	구성주의, 해체주의적이다
추상 언어	Synchronizing Geometry, Topography, Context

자료: <http://www.ferrater.com/>



그림 9. 칼로스 페라타와 호세 루이스 카노사; Botanical Garden Of Barcelona, 1995-1999

그녀만이 독특하게 가진 풍부한 미적 감성과 독창적으로 나타나는 공공조경 사이의 절묘한 결합에서 느낄 수 있다.

(2) 귀납적 복합 추상조경

대표작가로는 스페인 국적의 칼로스 페라타(Carlos Ferrater)와 호세 루이스 카노사(Jose Luis Canosa)가 있다. 그들의 대표작인 바르셀로나 식물원에서는 일반적인 식물 패턴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삼각형의 그리드는 다양한 지형의 배경을 보여주고 등고선을 따라서 전체적 윤곽과 순환을 보여준다.

IV. 결론

조경은 미술의 양식 변화에 동조하여 과거에도 유사한 양식 변화를 거쳐 왔으므로 현 시대에도 미술과 유사한 새로운 양식이 전개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박정욱, 2000). 그러므로, 현대의 모든 예술과 건축, 조경분야는 각각의 영역이 융복합되어 탈장르화되고, 하이브리드화되는 현

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로 인해 어느 것이 예술이고 어느 것이 건축인지, 조경인지 구분하기 모호해지고 있으며, 건축가가 조경을 하고 예술가가 건축을 하며, 조경가가 도시계획과 건축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우리의 현대조경은 알 수 없는 텍스트(text)들과 기존의 도면, 스케치, 디자인이 아닌 변형되고 왜곡된 포토몽타주(photomontage), 다이어그램(diagram), 매핑(mapping)등 디지털 이미지의 새로운 매체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물론 새로운 도구의 출현으로 인해 급변하는 현대예술이나 현대디자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과거 옴스테드식 픽처레스크 조경과는 판이하게 다른 난해하고 생경한 형태 즉 추상조경이 생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모더니즘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대조경의 추상유형에 대하여 기존에 연구방법인 뜨거운 추상-차가운 추상, 표현주의 추상(유기적 추상)-기하학적 추상을 벗어나 현대 추상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였고, 조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다.

첫째, 추상의 개념과 추상성의 시작은 현대 또는 근대의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존재하여 현재까지 발전되어오는 개념이다.

둘째, 최근의 작품들에서 나타난 조경의 추상성은 장르간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이브리드화되고 건축가, 예술가, 조경가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의해 추상예술작품과 같은 현대조경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셋째, 현대조경의 추상유형은 연역적 추상조경과 귀납적 추상조경, 복합적 추상조경으로 구분된다. 또한, 복합적 추상조경을 세분화하면 귀납적 추상성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연역적 추상에 더 가까운 연역적 복합 추상조경과 연역적 추상성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귀납적 추상에 더 가까운 귀납적 복합 추상조경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조경의 추상유형에 관한 연구는 추상작품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현대의 추상조경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미래의 조경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인간이 지닌 고도의 높은 정신적 관념에 대한 연구는 조경학의 질적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의 인간적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데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이의 근본이 되는 추상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주 1. 폴러가 말하길, 미메시스(imitation)의 의미뿐만 아니라 재현(representation), 또는 표현(expression)의 의미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메시스(mimesis)가 모방(imitation)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언어로는 포착해낼 수 없는 개념이다.

주 2. 노영덕(2004) 논문의 주요 논점은 연역적 표상과 귀납적 표상에 있다. 비록 그의 논문에서 밝힌 바는 연역적 표상과 귀납적 표상이지만 이는 결국 연역적 추상과 귀납적 추상이라고 인터뷰를 통해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가 추상성에 관한 내용이므로 연역적 추상과 귀납적 추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논리의 전개상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연역적 추상과 귀납적 추상으로 구분한다.

인용문헌

1. 김수기(2007) 200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빛. LIGHT. 디플.
2. 김정란(2005) 감상교육을 통한 미술비평 방법론의 교육적 함의(畵).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제연(2006) 미술비평을 통한 미술관 감상수업의 지도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지연(2004) 펠드만의 미술비평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김한배(2001) 모더니즘 조경설계에 미친 미술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9(4): 56.
6. 김한배(2004) 포스트모던 조경설계의 다원적 전개 양상. 한국조경학회지 32(6): 69-70.
7. 김홍기(2002) 건축 조형 디자인론. 기문당.
8. 김현화(2001) 20세기미술사. 한길아트.
9. 노영덕(2004) 예술의 비 모방적 속성에 대한 플로티누스적 고찰.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박기웅(2003) 현대미술이론 1. 형설출판사.
11. 박이문(1995) 건축이론과 비평 분야의 교육과 접근방식: 예술비평과 건축비평.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9(4): 16.
12. 박정욱(2000) 조경의 틀으로 들어온 현대미술. Locos 2.
13. 박준원(1997) 예술노트. 미술문화.
14. 박휘락(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교육. 시공사.
15. 오광수(1994) 추상미술의 이해. 일지사.
16. 오병남(2003) 미학강의. 서울대학교출판부.
17. 오종환(1995) 미적 도구주의의 관점에서 본 예술비평의 인식적 성격. 서울대학교인문논총 33: 93.
18. 임승빈(1984) 조경계획·설계론. 보성문화사.
19. 유재길(1992) 추상화 감상법. 대원사
20. 장일영(2006) 현대조경설계에 있어서 하이브리드적 경향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1. 장재웅(2005) 기하학적 추상미술에 나타나는 선적요소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조요한(2003) 예술철학. 미술문화.
23. 조경승, 안건용(1993) 조경설계작품평가의 기준과 항목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1(3): 22.
24. Anna Moszynska(1998) Abstract Art. 전혜숙(역), 20세기 추상미술의 역사. 시공사, 2003.
25. Bauer, Hermann(1998) Kunst historik. 홍진경(역), 미술사학의 이해. 시공사, 1998.
26. Denys Riout(2006) Qu'est-ce que l'art moderne? 정진국(역), 현대미술이란 무엇인가? 눈빛, 2006.
27. Foster, Hal et al.(2004) Art Since 1900. 배수희 등(역), 1900년 이후의 미술사. 세미콜론, 2007.
28. Kandinsky, W.(1912) Über das Geistige in der Kunst. 권영필(역),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미술책방, 2004.
29. Koller, H.(1954) Die Mimesis in der Antike: Nachahmung, Darstellung. Ausdruck. Bern.
30. Lacoste, Michel Conil(1979) Kandinsky. Crown New York.
31. Nicolin, Pierluigi and Francesco Repishti(2003) Dictionary of Today's Landscape Designers. Skira.
32. Herbert Read(1968) The Meaning of Art. 임산(역), 예술의 의미. 에코리브르, 2006.
33. Stölnitz, Jerome(1991) Aesthetics and Philosophy of Art Criticism. 오병남(역), 미학과 비평철학. 이론과 실천, 1991.
34. 町田甲一(1986) 정충락(역), 미술개론. 미술문화원, 1986.
35. 編著組(1989) 유홍준, 박수인(역), 예술개론. 청년사, 1989.
36. <http://photo.anyang.go.kr/Clist.asp>
37. <http://www.charlescorrea.net/>
38. <http://www.ferrater.com/>
39. http://www.landliving.com/image/groundswell_13.jpg

원 고 접 수 일: 2008년 2월 29일
 심 사 일: 2008년 4월 10일(1차)
 2008년 10월 6일(2차)
 계 재 확 정 일: 2008년 11월 26일
 3 인 의 명 심 사 필